

최근 노동시장 동향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오상봉(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분석센터 소장)

- ◎ 4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21만 6천 명 증가하여, 추세적으로 증가폭이 크게 축소
- 고용률은 60.3%로 전년동기대비 0.3%p 하락. 그러나 15~64세 고용률은 65.6%로 전년동기대비 0.2%p 상승
- ◎ 4월의 고용동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임
- 농업 및 보건복지업에서 취업자가 줄어들면서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비경제활동 인구 크게 증가
- 기존의 금융·보험업과 공공부문의 취업자 감소에 도소매업 취업자 증가가 대폭 축소되면서 30,40대 취업자 감소 확대
- ◎ 비경제활동인구는 27만 1천 명 증가하였는데, '쉬었음'과, '가사', '육아'의 증가폭 확대 및 감소폭 축소의 영향이 큼
-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는 주로 50대 이상 남성의 '쉬었음'과 여성의 '가사'의 영향임
- ◎ 연령대로 보면, 전체 취업자 수의 증가는 청년층과 50대 이상 취업자 수 증가의 영향이 크지만, 50대 이상 취업자 수 증가가 축소되면서 취업자 수 증가가 크게 낮아짐
-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22만 6천 명 증가(50대

11만 2천 명 증가, 60세 이상 11만 4천 명)

- 청년층 취업자 수는 청년 인구 감소(1만 7천 명)에도 불구하고 크게 증가(8만 5천 명). 20대 초반(20~24세)의 고용 증가는 주로 재학생들에게서 발생함. 20대 후반 남성의 고용률은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의 영향으로 증가로 반전
- 30대 취업자 수는 30대 초반 여성 고용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30대 후반의 고용률 하락으로 크게 하락. 그러나 인구 감소 규모보다 크지는 않음
- 도소매업과 교육업 부진의 영향으로 40대는 인구 감소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취업자 수 감소. 고용률이 이미 78%(남성은 91%)를 넘은 상태에서 더 이상의 고용률 증가를 기대하기는 힘들. 40대 취업자 감소는 주로 임시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감소에 기인함

- ◎ 종사상 지위로 보면, 상용직이 계속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는 반면, 임시직 취업자 증가는 3만 1천 명 감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세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세는 지속
 - 상용직은 30만 명이 증가. 상용직 증가는 50대(13만 4천 명), 60세 이상(11만 4천 명)이 주도하고 있지만 20대(4만 2천 명)와 40대(3만 6천 명)의 증가도 눈에 띈. 업종별로는 제조업(19만 5천 명), 보건복지업(7만 4천 명)이 주도하였음
 - 임시직은 3만 1천 명이 감소. 15~24세(4만 7천 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대(4만 5천 명)와 50대(3만 4천 명)의 감소로 전환.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4만 5천 명), 여가관련 서비스업(5만 5천 명), 건설업에서 크게 증가하였지만, 기타 개인서비스업(5만 3천 명), 금융·보험업, 공공부문, 제조업의 감소를 극복하지 못함
 - 일용직은 건설업, 음식·숙박업, 사업서비스업을 위주로 크게 증가(7만 8천 명)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7만 8천 명 증가. 건설업(2만 명)과 음식·숙박업(1만 7천 명)이 증가세를 주도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3만 5천 명 감소. 40대, 50대, 60대 이상 모두에서 4만 명 이상 감소. 농림어업(7만 8천 명), 음식·숙박업(2만 3천 명)의 감소폭이 큼
 - 무급가족종사자는 7만 4천 명 감소

- ◎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서비스업의 증가폭은 크게 둔화. 건설업 취업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농림어업 취업자 수 감소폭은 크게 확대
 - 제조업은 16만 7천 명 증가.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대(8만 8천 명), 40대, 60대 상용직(19만 5천 명)에서 주로 증가했으며, 일자리는 대기업(8만 1천 명)과 중소기업에서 비슷하게 증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6만 1천 명)과 식료품 제조업에서 취업자 증가가 큼
 - 서비스업은 10만 8천 명 증가.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55세 이상(21만 5천 명) 여성(16만 명)에서 주로 증가. 상용직(11만 1천 명)과 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증가하였으며 임시직은 감소(3만 6천 명). 일자리는 주로 중소기업(10만 명)에서 증가. 업종별로는 도소매업(7만 4천 명), 음식·숙박업(5만 6천 명), 보건복지업(8만 3천 명), 여가관련 서비스업(6만 9천 명)에서 주도. 그러나 금융·보험업(6만 7천 명), 공공행정(7만 명)의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되고, 도소매업의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축소(1만 3천 명 증가). 금융·보험업의 취업자 감소는 주로 중소기업에서 일어났는데, 업종별로는 보험업(4만 1천 명)에 특히 집중됨
 -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3만 5천 명 감소. 주로 60대 이상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폭 크게 확대
 - 건설업은 6만 3천 명 증가. 10인 미만 사업체(6만 1천 명)에 고용된 50세 이상 남성(7만 1천 명)이 주로 증가하였음. 임시, 일용,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
- ◎ 입직의 증가와 이직의 감소 추세가 지속됨
 - 입직은 상용직 및 임시직의 증가로 7만 7천 명, 9만 6천 명 증가
 - 이직은 6만 9천 명 감소

최근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 2015년 1~2월 평균 명목임금(3,448천 원)은 전년동월대비 2.6% 증가. 실질임금은 1.9% 증가

- 상용근로자의 1~2월 평균 정액급여가 3.1% 상승에 그치고 특별급여도 2.0% 하락하면서 초과급여 상승에도 임금총액(3,635천 원)은 2.4% 상승에 그침
 - 임시·일용근로자의 1~2월 평균 임금총액(1,422천 원)은 전년동월대비 0.7% 하락
- ◎ 2015년 1~2월 평균 근로시간(161.4시간)은 전년동월대비 3.2%(3.9시간) 감소
- 상용근로자의 1~2월 평균 근로시간은 165.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8% 감소
 - 비상용근로자의 1~2월 평균 근로시간은 115.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6.5% 감소